

#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Development of a Dali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민 하 영\*\*  
Min, Ha Young

유 안 진\*\*\*  
Yoo, An J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assess the daily hassles of school age children. The subjects were 398 third and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chon, Taejon, Kwangju and Pusan. Instruments included a questionnaire composed of a 96-item Daily Hassles Coping Scale, demographic questions, a 27-item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he 42-item Han & Yoo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and a 30-item Children's Behavior Check List for mothers. Mean, %,  $\chi^2$ , Cramer's V,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r$  were used for data analysis.

82 items from the 96-item Daily Hassles Coping Scale were selected through the item discriminant method. (Cramer's V discriminant coefficients ranged from .36 to .79). Five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1st and 2nd factor analyses. Subscales were "parent-related," "friend-related I," "study-related," "friend-related II," and "teacher-related" stress. Criterion validity of the 82-item scale was confirmed through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 $r=.55$ ) and the Han & Yoo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 $r=.22$ ).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was high, including internal reliability of subscales.

These results confirm this scale a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of daily hassles of school age children.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스트레스의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경험은 개인

의 사회, 정서적 또는 신체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위해성은 성인을 대상으로 신

\* 본 논문은 1998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문, TV, 잡지류 등의 매스컴이나 의학, 심리학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관심있게 다루려는 노력은 최근까지 매우 부진했다. 그러나 생애 발달적 시각에서 보면, 성인기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기 스트레스 및 그에 대한 대처행동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성인기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예방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부진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 중 학령기 아동은 인지적·사회적·신체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확장 및 전이과정과 질적인 변화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불안, 고통, 짜증스러움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그 어느 생애의 특정 시기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나타낼 때,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도 있음(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을 고려해보면, 인지, 사회, 신체적 발달과 그에 따른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 장애 및 잠재력 상실 등 자신의 안녕을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을 직접 조사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 평가자로서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강성희·이재연, 1993; Dubow & Tisak, 1989)이다. 그러나

일부 경험적 자료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아동의 평가와 성인의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Rende & Plomine, 1991) 있어, 성인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을 밝히고 아동이 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몇몇 국내 연구는 문화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문헌에서 사용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국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례로 연구함으로써(오명희, 1994; 진은경, 1991) 한국 아동이 일상적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경험적 규명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선행 연구는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등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Kliewer & Sandler, 1993; Wolichick, Sandler, Braver, & Fogas, 1986)되었다는 점이다.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가 아동의 적응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이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일반의 대다수 아동의 발달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소수의 아동이 경험하는 심각한 생활 스트레스보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사소한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개가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 효과로 중복될 때, 단일의 심각한 생활 사건보다 더욱 위협적일 뿐 아니라(Kanner et al., 1988), 심각한 생활 사건보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 신체적 증후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 있음(DeLongnis, Coyne,

Folkman, & Lazarus, 1982; Crnic & Greenberg, 1990)을 고려해보면, 대다수의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넷째,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연구는 최근 한미현과 유안진(1995a), 신은영과 김경연(1996)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지역적으로 서울 또는 부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대표하는데 지역적 제한점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연구의 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전국으로 확대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및 이를 측정할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한미현과 유안진(1995a)이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바 있으나, 한미현과 유안진은 아동이 대체로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에 초점을 두어 폭넓은 차원에 걸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한미현과 유안진의 스트레스 척도 가운데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

하는 많은 스트레스 유형 가운데, 대부분의 아동이 대체로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만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척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에 관한 척도 개발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 측정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 교사 및 그의 종사자들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2.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3.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의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스트레스의 측정방법이 달

라지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보는 입장은 생물학과 의학분야에서 널리 수용하는 입장으로 유기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반응(Cannon, 1932)을 스트레스로 본다.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보는 대표적 학자는 Selye(1974)로 그는 스트레스를 '모든 요구에 반응하는 신체의 불특정 반응' (p.14)으로 정의(Sorensen, 1993: 6에서 재인용)하면서 스트레스인 신체 생리적 기능의 변화를 밝히려 하였다.

유기체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심리·생리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개념을 규정한 Selye(1956)의 스트레스 정의는 신체의 자동적인 생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 유기체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하거나 손상을 주는 또는 유기체를 약화시키는 심리 생리적 감흥에 대한 연구 등에 사용되었다.

둘째,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입장은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환경내의 자극을 스트레스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보는 입장과 달리 스트레스를 독립된 변인으로 보고 개인의 신체, 심리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하고 위협적인 생활사건을 스트레스라고 개념을 규정하였다(Sorensen, 1993: 6). 생활사건을 스트레스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Holme과 Rahe(1967)로 그들은 생활사건 접근법을 통해 생활 사건의 객관적인 스트레스성 여부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입장은 생활사건이 갖는 객관적인 스트레스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생활사건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 측면은 간과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생활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보이는 차별적인

신체, 심리적 반응을 설명하지 못했다.

셋째, 스트레스를 상호역동적으로 보는 시각은 인지-현상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반응도 자극도 아닌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Sorensen, 1993: 35-37). 대표적인 학자는 Folkman과 Lazarus(1980, 1985)로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과정으로 스트레스를 해석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 19)은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하면서 어떠한 생활사건도 개인의 인지적 평가없이 스트레스로 기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 여부는 스트레스라 일반적으로 분류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마다 차별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심리·행동적 반응의 차이를 인정한다. 스트레스를 상호역동적으로 보는 시각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며 동일한 특정 사건에 대해 사람들마다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앞서 지적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호역동적 시각의 잇점에 근거하여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결정되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환경의 요구로부터 인지하는 위협을 스트레스'라 정의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불쾌감, 짜증, 속상함, 불안함 등의 부정적 정서상태를 이에 포함시킨다.

## 2. 아동의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유형

Coddington(1972)이 Holme과 Rahe (1967)의 성인용 생활 사건 척도를 토대로 아동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이래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생활사건을 평가하는 데는 1)발생한 생활 사건의 단순한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2)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법, 3)발생한 생활 사건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가중치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인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의 정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생활 사건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신은영·김경연, 1996; Coddington, 1972)이 제기되면서, 발생한 생활 사건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적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Cohen과 Hoberman(1983)은 스트레스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스트레스 측정 방식을 고찰한 결과 각 문항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방법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경희와 김광웅(1996)도 스트레스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사건의 총합, 표준적 가중치, 그리고 응답자의 주관적 가중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측정 방법이 갖는 예언적인 타당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생한 생활 사건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의 단순한 합을 스트레스 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Kanner, Feldman, Weinberger 그리고 Ford(1991), Rowlinson과 Felner(1988)는 Kanner 등(1981)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Daily Hassles

Scale)를 참고하여 아동의 사소한 문제 목록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친구 혹은 교사와의 갈등, 부모에게서의 꾸중, 학업성적 부진, 친구와의 말다툼 등을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은영과 김경연(1996)이 초등학교 2, 3, 4, 5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 요인을 중요한 생활 사건과 함께 목록화하여 부모관련, 형제관련, 친구관련, 교사관련, 자아 관련, 학업관련 등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미현과 유안진(1995a)은 경험적인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부모관련, 가정환경 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교사 및 학교생활 관련,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 3.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스트레스가 사회·정서적 발달과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사회·정서적 발달 가운데 아동의 우울 성향(신은영·김경연, 1996; Daniels & Moos, 1990; Rowlinson & Felner, 1988)이나 문제행동(한미현, 1996;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일관된 부적관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가 아동의 우울성향이나 문제행동 정도를 예측하는데 설득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아동의 우울성향이나 문제행동 등을 외적 기준 변인으로 하여 그 관계정도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 소재 초등학교 3, 6학년 남녀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신체적인 면에서 2차 성장과 같은 신체기능의 질적 발달이 시작되고, 인지적인 면에서 발전된 새로운 인지체계 구축 및 향상된 학습능력의 기대가 가중되고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 수행하며 또래문화를 배우고 또래에 적응할 것을 기대받는 등(유안진, 1995)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기의 아동은 조사도구인 질문지의 답변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기와 후기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을 대표하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의 5개 도시에서 각 1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하였다. 그리고 각 도시의 1개 학교 3학년, 6학년 한반씩 총 10개반 4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 대상의 어머니에게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정도를 평가하도록 부탁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아동 및 어머니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학년과 성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동의 형제 관계를 살펴보면 형제아가 외동아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으며, 형제아인 경우 형제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아동의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우세했으며, 가정내 소득은 월 100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56%)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1)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구성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송의열(1995)의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 신은영과 김경연(1996)의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Rowlinson과 Felner(1988)의 일상적 스트레스 질문지(Daily Hassles Questionnaire), Daniels와 Moos(1990) 청소년을 위한 생활 스트레스 사건과 사회적 자원 척도(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LISRES-Y)), Elwood(1987)의 스트레스 상황 척도(Inventory of Stressful Situation) 등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국내·외 연구 척도 및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18명의 3,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3차에 걸쳐 직접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반복된 개별면접을 통해 연구실점에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 및 유형을 문항 구성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124개의 문항을 서울 거주 초등학교 3, 6학년 6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용빈도가 낮은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는 분명하지 않은 문항 등

〈표 1〉 조사 대상 아동의 일반적 성격

| 변수      | 구분           | 빈도 (%)     | 인원 (결측인원) |
|---------|--------------|------------|-----------|
| 학년      | 3학년          | 197 (49.5) | 398 ( 0)  |
|         | 6학년          | 201 (50.5) |           |
| 성별      | 남자           | 202 (50.8) | 398 ( 0)  |
|         | 여자           | 196 (49.2) |           |
| 연령      | 9세           | 48 (12.1)  | 398 ( 0)  |
|         | 10세          | 149 (37.4) |           |
|         | 12세          | 40 (10.1)  |           |
|         | 13세          | 161 (40.4) |           |
| 지역      | 서울           | 66 (16.6)  | 398 ( 0)  |
|         | 인천           | 93 (23.4)  |           |
|         | 대전           | 75 (18.8)  |           |
|         | 부산           | 73 (18.3)  |           |
|         | 광주           | 91 (22.9)  |           |
| 형제수     | 외동아          | 30 ( 7.5)  | 388 (10)  |
|         | 1명           | 291 (73.1) |           |
|         | 2명 이상        | 67 (16.9)  |           |
| 가족형태    | 핵가족          | 328 (82.6) | 397 ( 1)  |
|         | 3세대 직계가족     | 54 (13.6)  |           |
|         | 2세대 동거가족     | 14 ( 3.5)  |           |
| 월 평균소득  | 100만원 미만     | 28 ( 7.0)  | 381 (17)  |
|         | 100-200만원 미만 | 179 (47.0) |           |
|         | 200-300만원 미만 | 108 (28.3) |           |
|         | 300만원 이상     | 66 (17.3)  |           |
| 어머니의 학력 | 중졸 이하        | 66 (17.5)  | 378 (20)  |
|         | 고졸           | 223 (59.0) |           |
|         | 전문대졸         | 17 ( 5)    |           |
|         | 대졸           | 67 (17.7)  |           |
|         | 대졸이상         | 5 ( 1.0)   |           |

28개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는 총 96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스트레스 측정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응답 방식은 지난 3개월 동안 매우 슬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나게 했던 생활 사건들에 대해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런 편이다(1점)' '많이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4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 2) 아동의 우울 척도, 문제 행동 척도, 그리고 스트레스 척도 구성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

에서 개발되는 스트레스 척도의 외적 기준변수로 Achenbach(1991)의 아동 문제행동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Kovacs(1981)의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와 선행 스트레스 척도와의 관계성을 살피기 위해 한 미현과 유 안진(1995a)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 척도(CBCL)는 Achenbach가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을 보완하여 4에서 18세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한 미현과 유 안진(1995b)이 초등학교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국내 사용의 타당화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Achenbach의 CBCL 가운데 한 미현과 유 안진(1995b)이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여 한 미현의 연구(1996)에서 사용한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40문항 중 각 영역에서 설명력이 높은 6문항씩을 선정하여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 정서적 문제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CBCL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조사 대상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 특성을 기술한 각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렇다(1점)' '매우 그렇다(2점)'에 3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동의 아동용 우울 검사 척도(CDI)는 8세에서 13세 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우울한 기분 5문항, 행동 장애 7문항, 흥미 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의 5가지 범주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의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신

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서술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대해 각각 0점, 1점, 2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우울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 미현과 유 안진(1995a)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폭넓게 조사하여 작성한 이 척도는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약간 그런 편이다(1점)', '매우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한 미현과 유 안진의 척도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되었다는 점과 이 연구의 조사 대상 연령과 유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공인 타당도를 위한 외적 기준 관련 척도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 미현과 유안진의 스트레스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구성을 위해 스트레스관련 선행 연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97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아동들이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자, 연구자가 직접 초등학교 3, 6학년 1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124문항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비조사가 1997년 10월 16일



서울 거주 초등학교 3, 6학년 각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된 96개의 스트레스 문항에 대한 본 조사는 19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지역에서 총 409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및 서면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아동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에서 실시된 후 회수되었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담임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배부된 후 담임교사가 회수토록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각 지역의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그 결과 아동용 질문지는 409부가 어머니용 질문지

는 37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아동용의 응답 질문지 가운데 부실 기재 된 것을 제외한 398부와 어머니용 37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와 SAS PC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 및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Varimax회전 방법을 이용한 요인수 지정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 사항

본조사에서 사용한 96개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가운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분산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과소 또는 과다 체격에 대해(M=1.7 SD=1.7), 운동능력이 뒤쳐지는 것(M=1.6 SD=.85)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나를 친구나 형제와 비교 말씀해서(M=2.1 SD=.99),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M=2.0 SD=.91), 물건 제자리에 놓으라고 잔소리해서(M=1.9 SD=.89), 방 청소, 손씻기 등 사소한 것들에 대해 시시콜콜

잔소리 해서(M=1.8 SD=.85),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맘놓고 보지 못하게 해서(M=1.8 SD=.93), 형제와의 다툼에서 나만 야단쳐서(M=1.7 SD=.92),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을 때(M=1.7 SD=.93)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기를 또래 친구나 형제와 비교해 말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평균 1.3정도를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해 거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동은 교사가 몇몇 아동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 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친구들과 앞에서 야단치는 것(M=1.4

SD=.74)으로 인해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학령기 아동은 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기 때문에(M=2.0 SD=1.01)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그만 일에도 잘난 척 하는 친구로 인해(M=1.9 SD=1.02), 괜히 꼬집거나 때리는 친구 때문에(M=1.8 SD=1.02), 청소나 당번, 주변 등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볼 때(M=1.8 SD=1.02),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때(M=1.8 SD=.98) 친구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M=1.8 SD=.96), 좋아하는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M=1.7 SD=.62),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홍보거나 욕할 때(M=1.7 SD=.98),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나쁜 말이나 욕을 자주 사용해서(M=1.7 SD=.94)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랫동생이 자기에게 반말을 할 때(M=1.8 SD=.96), 형제들이 자기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뒤질 때(M=1.7 SD=.93)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가 모여 있는 것은 학습관련 스트레스로 학령기 아동은 학교 시험 때문에(M=2.4 SD=1.10), 성적이 떨어질까봐(M=2.2 S·D=1.09),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M=2.1 SD=1.01), 원하는 상급학교에 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M=1.8 SD=.89),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M=1.7 SD=.89)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 주변 관련 스트레스는 1.3에서 1.4 정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

〈표 2〉 스트레스 문항의 평균 및 분산(N=398)

| 문항 | 평균  | 분산  | 문항 | 평균  | 분산   | 문항 | 평균  | 분산   |
|----|-----|-----|----|-----|------|----|-----|------|
| 1  | 1.7 | .74 | 33 | 1.4 | .68  | 65 | 1.7 | .94  |
| 2  | 1.4 | .65 | 34 | 1.5 | .83  | 66 | 1.8 | .98  |
| 3  | 1.4 | .70 | 35 | 1.7 | .93  | 67 | 1.7 | .89  |
| 4  | 1.6 | .85 | 36 | 1.5 | .78  | 68 | 1.3 | .75  |
| 5  | 2.0 | .91 | 37 | 1.3 | .65  | 69 | 1.8 | .96  |
| 6  | 1.6 | .81 | 38 | 1.4 | .77  | 70 | 1.5 | .88  |
| 7  | 1.5 | .75 | 39 | 1.4 | .76  | 71 | 1.5 | .87  |
| 8  | 1.5 | .76 | 40 | 1.4 | .74  | 72 | 1.6 | .95  |
| 9  | 1.8 | .91 | 41 | 1.3 | .64  | 73 | 1.8 | .96  |
| 10 | 1.4 | .68 | 42 | 1.3 | .70  | 74 | 1.4 | .81  |
| 11 | 1.6 | .82 | 43 | 1.7 | .87  | 75 | 1.3 | .73  |
| 12 | 1.6 | .82 | 44 | 1.6 | .87  | 76 | 1.7 | .93  |
| 13 | 2.1 | .99 | 45 | 1.5 | .78  | 77 | 1.3 | .73  |
| 14 | 1.4 | .72 | 46 | 1.6 | .89  | 78 | 1.4 | .84  |
| 15 | 1.5 | .82 | 47 | 1.4 | .86  | 79 | 1.4 | .86  |
| 16 | 1.3 | .69 | 48 | 1.6 | .88  | 80 | 1.4 | .71  |
| 17 | 1.5 | .79 | 49 | 1.6 | .88  | 81 | 1.7 | .94  |
| 18 | 1.6 | .80 | 50 | 1.5 | .84  | 82 | 1.6 | .83  |
| 19 | 1.9 | .89 | 51 | 2.0 | 1.01 | 83 | 2.0 | .99  |
| 20 | 1.8 | .85 | 52 | 1.5 | .76  | 84 | 1.8 | .89  |
| 21 | 1.4 | .72 | 53 | 1.4 | .69  | 85 | 1.5 | .88  |
| 22 | 1.5 | .89 | 54 | 1.3 | .72  | 86 | 1.7 | .89  |
| 23 | 1.6 | .89 | 55 | 1.6 | .97  | 87 | 2.2 | 1.09 |
| 24 | 1.4 | .68 | 56 | 1.8 | 1.02 | 88 | 2.1 | 1.01 |
| 25 | 1.3 | .59 | 57 | 1.4 | .75  | 89 | 1.5 | .88  |
| 26 | 1.4 | .82 | 58 | 1.9 | 1.02 | 90 | 2.4 | 1.10 |
| 27 | 1.4 | .79 | 59 | 1.4 | .72  | 91 | 1.6 | .96  |
| 28 | 1.8 | .93 | 60 | 1.7 | .98  | 92 | 1.3 | .66  |
| 29 | 1.6 | .86 | 61 | 1.5 | .82  | 93 | 1.4 | .78  |
| 30 | 1.7 | .92 | 62 | 1.6 | .89  | 94 | 1.5 | .77  |
| 31 | 1.4 | .74 | 63 | 1.3 | .63  | 95 | 1.4 | .85  |
| 32 | 1.4 | .75 | 64 | 1.8 | .99  | 96 | 1.4 | .68  |

들은 생활 주변으로부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문항 양호도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96개 문항들이 변별도에서 양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값과 Cramer의 V의 계수, 문항이제거된 후의  $\alpha$ 값, 문항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항의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우선 96개 문항 중 문항이 제거된 후의  $\alpha$ 값이 증가하는 문항 그리고 문항간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 14개를 제거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 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7%의 두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chi^2$ 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82개 문항은  $p < .001$ 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계수는 모든 문항에서 .36에서 .79사이를 나타냈다. 변별도 지수의 일반적 수용수준이 .25이상임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82개 문항구성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 3. 타당도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문항 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82개 문항에 대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scree 검사, 누적 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켰다. 1차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값이 .40 이하를 나타내거나 타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30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1차 요인분석 결과로 나온 52개 문항을 대상으로 scree 검사, 누적 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한 후,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방법

으로 회전시키는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42.5%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해당 요인과의 요인 부하값이 .40이하를 나타내거나 타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4개 문항을 제외한 48개 문항을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요인구조는 <표 4>와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24.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20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20개 문항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부모관련 스트레스'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6.8%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친구와의 관계 중 친구와의 친밀감 상실, 인기 부족, 소속감 부족 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로 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요인 2를 '친구관련 스트레스 I (소외적 관계)'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 설명 변량의 4.5%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관련 문항 8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요인 3을 '학업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6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 내용은 주로 친구관련 스트레스 가운데, 친구의 잘난 척, 공격, 욕하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친구관련 스트레스 II (피해적 관계)'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3개 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 내용은 교사와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교사관련 스트레스'라 명명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추출된 5개 요인은 기존에 사용하는 스트레스 척도 (한미현·유안진, 1995a; Rowllins & Felner, 1988)와 달리 친구관련 요인이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 환경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추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

〈표 3〉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문항의 양호도

| 문항<br>번호 | 문항-척도간<br>상관계수 | 문항 제외시<br>$\beta$ | $\chi^2$ | Cramer's<br>V | 문항<br>번호 | 문항-척도간<br>상관계수 | 문항 제외시<br>$\beta$ | $\chi^2$ | Cramer's<br>V |
|----------|----------------|-------------------|----------|---------------|----------|----------------|-------------------|----------|---------------|
| 2        | .41            | .9588             | 21.5**   | .36           | 50       | .61            | .9583             | 72.0**   | .66           |
| 3        | .39            | .9689             | 35.6**   | .42           | 51       | .50            | .9586             | 58.0**   | .60           |
| 5        | .49            | .9586             | 63.6**   | .62           | 52       | .49            | .9587             | 46.3**   | .53           |
| 6        | .48            | .9587             | 72.8**   | .67           | 53       | .47            | .9587             | 46.7**   | .53           |
| 7        | .37            | .9589             | 39.6**   | .49           | 54       | .41            | .9588             | 25.5**   | .39           |
| 8        | .38            | .9589             | 42.3**   | .51           | 55       | .47            | .9587             | 42.9**   | .51           |
| 9        | .42            | .9588             | 41.2**   | .50           | 56       | .50            | .9586             | 55.6**   | .58           |
| 10       | .37            | .9589             | 45.8**   | .53           | 57       | .47            | .9587             | 36.7**   | .47           |
| 11       | .47            | .9587             | 59.2**   | .60           | 58       | .53            | .9585             | 61.7**   | .61           |
| 12       | .38            | .9589             | 38.3**   | .48           | 59       | .57            | .9585             | 64.1**   | .63           |
| 13       | .47            | .9587             | 62.6**   | .62           | 60       | .57            | .9584             | 62.4**   | .62           |
| 14       | .37            | .9589             | 38.0**   | .48           | 61       | .52            | .9586             | 48.9**   | .55           |
| 15       | .42            | .9688             | 42.3**   | .51           | 62       | .53            | .9585             | 58.3**   | .60           |
| 17       | .55            | .9585             | 47.0**   | .54           | 63       | .42            | .9588             | 34.0**   | .46           |
| 18       | .47            | .9587             | 59.7**   | .60           | 64       | .52            | .9585             | 73.0**   | .67           |
| 19       | .42            | .9588             | 58.3**   | .60           | 65       | .41            | .9589             | 40.2**   | .50           |
| 20       | .45            | .9587             | 48.6**   | .54           | 66       | .56            | .9584             | 59.8**   | .60           |
| 22       | .38            | .9589             | 39.5**   | .49           | 67       | .42            | .9588             | 49.6**   | .55           |
| 25       | .41            | .9589             | 49.8**   | .55           | 69       | .49            | .9586             | 61.7**   | .61           |
| 26       | .39            | .9589             | 34.1**   | .46           | 70       | .41            | .9589             | 36.4**   | .47           |
| 27       | .40            | .9589             | 42.2**   | .51           | 71       | .42            | .9588             | 46.6**   | .53           |
| 28       | .45            | .9587             | 53.3**   | .57           | 72       | .52            | .9585             | 56.5**   | .59           |
| 29       | .43            | .9588             | 44.7**   | .52           | 73       | .50            | .9586             | 52.3**   | .57           |
| 30       | .43            | .9588             | 40.2**   | .50           | 74       | .47            | .9587             | 52.3**   | .56           |
| 31       | .42            | .9588             | 37.9**   | .48           | 75       | .47            | .9587             | 50.4**   | .55           |
| 32       | .45            | .9587             | 40.2**   | .50           | 76       | .49            | .9586             | 56.4**   | .59           |
| 33       | .52            | .9586             | 53.0**   | .57           | 79       | .40            | .9589             | 35.3**   | .46           |
| 34       | .52            | .9586             | 52.1**   | .56           | 81       | .40            | .9589             | 41.5**   | .50           |
| 35       | .49            | .9586             | 47.2**   | .54           | 82       | .48            | .9587             | 44.6**   | .52           |
| 36       | .40            | .9589             | 35.4**   | .46           | 83       | .50            | .9586             | 70.9**   | .66           |
| 37       | .41            | .9588             | 46.7**   | .53           | 84       | .42            | .9588             | 49.0**   | .55           |
| 38       | .35            | .9590             | 29.2**   | .42           | 85       | .57            | .9584             | 60.2**   | .61           |
| 39       | .35            | .9590             | 25.6**   | .40           | 86       | .48            | .9587             | 57.4**   | .59           |
| 42       | .42            | .9588             | 25.4**   | .40           | 87       | .62            | .9582             | 102.6**  | .79           |
| 43       | .50            | .9586             | 61.2**   | .61           | 88       | .56            | .9584             | 85.0**   | .72           |
| 44       | .50            | .9586             | 49.8**   | .55           | 89       | .46            | .9587             | 45.4**   | .53           |
| 45       | .55            | .9585             | 65.8**   | .63           | 90       | .44            | .9588             | 54.7**   | .58           |
| 46       | .52            | .9585             | 67.4**   | .64           | 91       | .50            | .9586             | 50.1**   | .55           |
| 47       | .56            | .9584             | 45.5**   | .53           | 93       | .45            | .9587             | 44.0**   | .52           |
| 48       | .51            | .9586             | 64.2**   | .63           | 94       | .41            | .9588             | 35.1**   | .46           |
| 49       | .50            | .9586             | 73.4**   | .67           | 96       | .37            | .9589             | 27.0**   | .41           |

\*\*p < .001

〈표 4〉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 행렬표

| 요인명명                           | 문항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   | 4요인5 | h <sup>2</sup> |
|--------------------------------|-----|-------|------|------|------|------|----------------|
| 부모관련<br>스트레스                   | 34  | .60   | -.02 | .11  | .29  | .11  | .47            |
|                                | 8   | .57   | -.10 | .21  | .19  | .01  | .42            |
|                                | 10  | .57   | .20  | .08  | -.13 | .00  | .39            |
|                                | 20  | .57   | .10  | .20  | .17  | -.27 | .48            |
|                                | 6   | .55   | .17  | .16  | .00  | .10  | .37            |
|                                | 22  | .55   | .29  | .07  | -.06 | -.17 | .42            |
|                                | 32  | .55   | .12  | .13  | -.03 | .21  | .38            |
|                                | 35  | .55   | .03  | .19  | .20  | .09  | .38            |
|                                | 37  | .53   | .19  | .04  | -.02 | .18  | .35            |
|                                | 11  | .53   | .30  | -.01 | .02  | .08  | .38            |
|                                | 29  | .51   | -.00 | .09  | .19  | .14  | .32            |
|                                | 5   | .51   | .07  | .23  | -.09 | .10  | .34            |
|                                | 15  | .50   | -.01 | .16  | .21  | .04  | .32            |
|                                | 33  | .50   | .24  | .04  | .19  | .12  | .36            |
|                                | 19  | .49   | .08  | .11  | .25  | -.11 | .33            |
|                                | 13  | .48   | -.03 | .33  | .15  | .10  | .37            |
|                                | 25  | .46   | .28  | .06  | -.05 | .10  | .31            |
|                                | 7   | .45   | .13  | .05  | .14  | -.12 | .26            |
| 9                              | .44 | -.01  | .34  | .17  | -.03 | .34  |                |
| 18                             | .43 | .24   | -.03 | .24  | .04  | .30  |                |
| 친구관련<br>스트레스 I<br>(소외적<br>관계)  | 47  | .11   | .75  | .15  | .13  | .04  | .61            |
|                                | 48  | .20   | .69  | .11  | .07  | -.04 | .53            |
|                                | 52  | .02   | .63  | .16  | .21  | .17  | .50            |
|                                | 45  | .11   | .63  | .12  | .23  | .16  | .50            |
|                                | 46  | .11   | .60  | .11  | .21  | .14  | .45            |
|                                | 59  | .19   | .56  | .20  | .29  | .06  | .47            |
|                                | 57  | .12   | .55  | .13  | .20  | .13  | .39            |
|                                | 49  | .23   | .55  | .16  | .09  | .09  | .40            |
| 63                             | .00 | .55   | .16  | .13  | .13  | .36  |                |
| 53                             | .27 | .49   | .18  | -.02 | .09  | .35  |                |
| 학업관련<br>스트레스                   | 87  | .25   | .23  | .72  | .12  | -.04 | .65            |
|                                | 90  | .06   | .15  | .72  | .14  | -.01 | .56            |
|                                | 88  | .20   | .23  | .70  | .03  | .11  | .59            |
|                                | 83  | .18   | .18  | .64  | -.03 | .10  | .48            |
|                                | 86  | .20   | .20  | .55  | .06  | .06  | .39            |
|                                | 79  | .12   | -.01 | .48  | .32  | .32  | .35            |
|                                | 82  | .17   | .21  | .47  | .16  | .16  | .33            |
| 84                             | .10 | .14   | .43  | .26  | .26  | .28  |                |
| 친구관련<br>스트레스 II<br>(피해적<br>관계) | 69  | .09   | .10  | .13  | .70  | -.01 | .52            |
|                                | 56  | .19   | .24  | .01  | .64  | .06  | .51            |
|                                | 60  | .12   | .34  | .14  | .63  | .14  | .56            |
|                                | 58  | .14   | .23  | .27  | .52  | .12  | .43            |
|                                | 67  | .08   | .32  | .07  | .48  | .03  | .34            |
|                                | 61  | .12   | .30  | .31  | .45  | .01  | .40            |
|                                | 68  | .14   | .22  | .26  | .43  | .17  | .35            |
| 교사관련<br>스트레스                   | 38  | .14   | .15  | .10  | .06  | .79  | .67            |
|                                | 39  | .11   | .10  | .10  | .16  | .70  | .55            |
|                                | 42  | .09   | .30  | .12  | .11  | .67  | .58            |
| 고유값                            |     | 11.55 | 3.25 | 2.14 | 1.8  | 1.7  |                |
| 설명변량                           |     | 24.1  | 6.8  | 4.5  | 3.7  | 3.6  |                |
| 총설명변량                          |     |       |      | 42.5 |      |      |                |

를 보인다. 친구관련 요인이 두 개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구분된 것은 학령기 아동이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의 실패로 인한 소외감 뿐 아니라 또래로부터의 일방적 해꼬지, 공격, 욕하기 등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등 친구관계에서 이질적인 두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친구로부터의 공격이나 비난이 친구관계로 부터의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추출된 것은 다수의 아동이 친구로부터의 공격이나 해꼬지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생활 주변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은 것은 이 연구가 예비조사를 통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스트레스 문항들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조사 결과 3,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변환경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대부분의 3, 6학년 초등학교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스트레스 척도 요인으로 주변환경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이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낮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이는 문항을 제거한 후, 1, 2차 요인분석 과정에서 해당 요인과 .40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며, 타 요인과 .35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갖지 않은 요인들만을 선택하는 등 엄격한 기준 하에서 요인 분석 및 요인 선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 미현과 유 안진(1995a)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Kovacs(1981)의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한 미현과 유 안진(1995b)의 국내 타당화 검증을 거친 Achenbach(1991)의 사회, 정

서적 문제 행동 척도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와의 관계 및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간에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총 스트레스와 각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는 요인 5( $r=.49, p<.001$ )를 제외하고  $r=.76 (p<.001)$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이

<표 5> 스트레스 척도와 외적 기준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H·Y 척도 | H·Y 척도 |
|--------------|-------|-------|-------|-------|-------|--------|--------|
| 요인1          |       |       |       |       |       |        |        |
| 요인2          | .50** |       |       |       |       |        |        |
| 요인3          | .53** | .51** |       |       |       |        |        |
| 요인4          | .49** | .60** | .51** |       |       |        |        |
| 요인5          | .32** | .40** | .30** | .34** |       |        |        |
| H·Y 척도       | .85** | .79** | .77** | .76** | .49** |        |        |
| H·Y 척도       | .75** | .73** | .82** | .68** | .46** | .93**  |        |
| 우울성향 (N=398) | .49** | .42** | .43** | .40** | .25** | .55**  | .51**  |
| CBCL (N=378) | .22** | .19** | .11   | .14*  | .10   | .22**  | .14*   |

\*  $p < .01$ , \*\*  $p < .001$

참고: 외적 기준관련 변인으로 한미현과 유안진(1995a)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Kovacs(1981)의 우울 성향, 그리고 Achenbach(1991)의 CBCL(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용하였다. 한편 우울 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큰 것을, CBCL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H·Y 척도는 한 미현과 유 안진(1995a)의 스트레스 척도를 그리고 M·Y는 민 하영과 유 안진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의미한다.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는 한 미현과 유안진(1995a)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 $r = .93$   $p < .001$ )를 보이고 있지만 한 미현과 유안진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에 비해 아동이 보고한 자신의 우울성향이나( $r = .55$   $p < .001$ )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r = .22$   $p < .001$ )과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가 외적 기준 관련 변수와 관련하여 공인 타당한 척도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아동의 심리·사회 및 정서적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한 미현과 유안진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보다 설명력이 향상되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 4. 신뢰도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 주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lpha = .93$ 으로 매우 높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alpha = .72 \sim .88$ ).

〈표 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 하위요인 | 문항 수 | Cronbach's $\beta$ |
|------|------|--------------------|
| 요인 1 | 20   | .88                |
| 요인 2 | 10   | .86                |
| 요인 3 | 8    | .83                |
| 요인 4 | 7    | .78                |
| 요인 5 | 3    | .72                |
| 전체   | 48   | .93                |

### V. 결론 및 논의

아동의 스트레스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미현과 유안진(1995a)이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미현과 유안진 척도는 아동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종류에 근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가운데 아동들이 일상 생활에서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국, 내외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관련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시점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 총 18명과의 반복적 접촉을 통한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현 사회 문화에서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유형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스트레스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총 124문항으로 구성된 1차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1차 질문지는 서울 소재 3, 6학년 각 1개반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되었으며 예비조사결과, 유사한 내용이나 사용빈도가 적은 문항 등 29개 문항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예비조사 과정에서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문항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조사에 사용할 총 96개 문항의 자기 보고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본조사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부산의 5개 지역 3, 6학년 초등학교 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할 수 있다.

첫째, 82개 문항을 대상으로  $\chi^2$  값( $p < .001$ )과 Cramer의 V의 계수(.36-.79) 확인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구성은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1, 2차 요인분석결과 해당요인과 요인 부하값이 .40 이하를 나타내거나 타 요인과 .35 이상의 요인 부하값을 보이는 30문항을 제외하여 얻은 48개의 스트레스 구성문항이 전체 변량의 42.5%를 설명해 주는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5개 요인은 각각 부모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I(소외적)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II(피해적) 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한편, 5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개발된 이 연구 척도는 아동이 보고한 Kovacs(1981)의 아동용 우울 성향, 한 미현과 유 안진(1995a)의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및 어머니가 보고한 Achenbach(1991)의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r = .55$ ,  $r = .93$ ,  $r = .22$ ,  $p < .001$ )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구인 및 공인 타당도에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 = .93$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별 Cronbach's  $\alpha$ 계수도 .72-.88의 범위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국 5개 도시 지역 초등학교 3,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아동의 일상 생활의 사소한 스트레스를 측정

할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문제의 결과 외에 이 연구에서는 3, 6학년 학령기 아동이 부모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신을 다른 형제나 자신의 친구와 비교해서 말할 때,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거나 놀릴 때, 형제와 관련해서는 아랫동생이 자신에게 반말할 때, 그리고 학업과 관련해서는 성적이 떨어질까봐, 또는 학교 시험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 자신 및 교사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아동은 부모, 형제, 친구와의 사소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분석 결과,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은 현재의 학령기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적 내용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친구관련 II 스트레스(피해감) 요인'은 초등학교 중기 및 후기 아동이 일상의 학교 생활에서 친구의 잘난 척이나 공격 또는 위협을 쉽게 경험하고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생활하는 부모 및 교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할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요구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전체적인 스트레스 유형보다 학령기 아동이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중심으로 척도를 개발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관련 스트레스라든가, 개인의 신체관련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 사용시,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 상의 어려움으로 1, 2학년 저학년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첫째,

5개 도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기초로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외적 기준 관련 변인간의 관계가, 동일한 자료 수집원에 따른 편향된 자료의 수집 결과에 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자료 수집원(源)인 아동 뿐 아니라 스트레스 수집원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얻은 아동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한 미현과 유안진(1995a)이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아동의 우울성향 및 문제행동 등 학령기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좀 더 개선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희 · 이재연(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3: 2, 161-174.
-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 행동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8.
- 유안진(1995). *인간발달 신강*. 서울: 문음사.
- 이경희 · 김광웅(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 6, 127-140.
- 한미현 · 유안진(1995a).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 4, 49-64.
- \_\_\_\_\_(1995b).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2: 2, 1-21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annon, W. B. (1932). *The wisdom of the body*. NY: Norton.
- Coddington, R. (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A survey of professional workers. *J.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aniels, D. & Moos, R. 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69.
- DeLongis, A., Coyne, J. C., Dakof, G., Folkman, S., & Lazarus, R. S. (1982).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uplifts, and major life events to health status. *Health Psychology*, 1, 119-136.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Elwood, S. W. (1987). Stress and coping response inventories for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60, 931-947.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anner, A. D., Feldman, S. S., Weinberger, D. A., & Ford, M. E. (1991). Uplifts, hassles, and adaptational outcomes in early adolescents In A. Mona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3rd ed., pp. 158-181). NY: Columbia Univ. Press
- Kliwer, W., & Sandler, I. N. (1993). Social competence and coping among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3, 432-440.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 age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32-444.

Sorensen, E. L.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NY: The Gilford press.

Wolichick, S. A., Sandler, I. N., Braver, S. L.,

& Fogas, B. S. (1986). Events of parental divorce: Stressfulness ratings by children, parent and clinicians. *American J. of Community Psychology*, 14, 59-74.

(부록)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 문항 내용

| 요인명명                     | 번호()                         | 문항내용  |
|--------------------------|------------------------------|---|
| 부모관련<br>스트레스             | 1 (34)                       | 부모님이 나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야단쳐서                   |
|                          | 2 ( 8)                       | 부모님이 내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여서                              |
|                          | 3 (10)                       | 부모님이 나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
|                          | 4 (20)                       | 부모님이 방청소, 손씻기 등 시시콜콜 잔소리를 해서                            |
|                          | 5 ( 6)                       |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
|                          | 6 (22)                       | 부모님이 용돈은 적게 주고 용돈을 아껴쓰라고 말해서                            |
|                          | 7 (32)                       | 부모님이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좋아해서                                  |
|                          | 8 (35)                       | 내가 형, 언니, 동생 등 형제와 다투면 부모님이 나만 야단치기 때문에                 |
|                          | 9 (37)                       |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거나 관심주지 않아서                       |
|                          | 10 (11)                      | 부모님이 나와 놀러 나가거나 놀아주지 않아서                                |
|                          | 11 (29)                      | 부모님이 하고 싶은 놀이, 오락 또는 컴퓨터 게임을 맘 놓고 하지 못하게 해서             |
|                          | 12 ( 5)                      | 부모님이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해서                                     |
|                          | 13 (15)                      |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를 괜히 나에게 풀어서                                |
|                          | 14 (33)                      | 부모님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잘 들어주지 않아서                              |
|                          | 15 (19)                      | 부모님이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잔소리해서                                |
|                          | 16 (13)                      | 부모님이 나를 내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해가며 말해서                            |
|                          | 17 (25)                      |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세대차를 느껴서                                    |
|                          | 18 ( 7)                      | 부모님이 잔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켜서                                    |
|                          | 19 ( 9)                      | 부모님이 내 성적과 시험에 너무 신경써서                                  |
|                          | 20 (18)                      | 내가 원하는 물건을 부모님이 잘 사주지 않아서                               |
| 친구관련<br>스트레스 I<br>(소외감)  | 21 (47)                      |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거나 적어서                                     |
|                          | 22 (48)                      | 친구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
|                          | 23 (52)                      | 내가 친구들과 다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 친한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
|                          | 24 (45)                      | 친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
|                          | 25 (46)                      |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가 있어서                             |
|                          | 26 (59)                      |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
|                          | 27 (57)                      | 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빌려주는 친구가 적어서                              |
|                          | 28 (49)                      | 나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진 친구가 많아서(예를 들어 나보다 더 잘 산다거나 잘 생겼거나) |
|                          | 29 (63)                      | 모르거나 이해안되는 문제에 대해 잘 가르쳐주는 친구가 적어서                       |
|                          | 30 (53)                      |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
| 학업관련<br>스트레스             | 31 (87)                      | 성적이 떨어질까봐   |
|                          | 32 (90)                      | 학교 시험 때문에   |
|                          | 33 (88)                      | 노력해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
|                          | 34 (83)                      | 원하는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
|                          | 35 (86)                      |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방법을 잘 몰라서                                 |
|                          | 36 (81)                      | 수학, 글쓰기, 영어 등 공부해야할 것이 너무 많아서                           |
|                          | 37 (82)                      | 수업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가서                                      |
|                          | 38 (84)                      | 숙제가 많아서   |
| 친구관련<br>스트레스 II<br>(위협감) | 39 (70)                      |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친구가 때려서                                     |
|                          | 40 (51)                      | 괜히 꼬집거나 때리는 등 못살게 구는 친구 때문에                             |
|                          | 41 (60)                      | 작은 실수나 잘못밖에 안했는데도 지나치게 때리거나 욕하는 친구 때문에                  |
|                          | 42 (58)                      | 조그만 일에도 잘난척 하는 친구 때문에                                   |
|                          | 43 (67)                      | 친구들이 이야기 하면서 나쁜 말이나 욕을 자주 사용해서                          |
|                          | 44 (61)                      | 친구들이 공부나, 성적,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놀리거나 약올리기 때문에                  |
| 45 (69)                  |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   |
| 교사관련<br>스트레스             | 46 (38)                      | 선생님이 몇몇 아이만 좋아해서  |
|                          | 47 (39)                      | 선생님이 앞 뒤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친구들과 앞에서 야단쳐서               |
|                          | 48 (42)                      |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

( )안의 번호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 연구의 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번호임.